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4년도 제24호

자격 없는 선수에 심판 말기 점 등 징계 대상에... 조우영 전 감독, 징계 반발해 이의 신청

대한체육회, '돈상납 의혹' 前 다이빙 국가대표 지도자에 '자격정지 3년' 확정

김현지 시사저널 기자

선수 출신과 지도자 및 학교 체육지도자 등으로 구성

스포츠윤리센터 2024 인권감시관 위촉, 체육계 인권침해 현장 점검 및 예방

배정호 스포티비 기자

학생 선수에서 학생으로, 사회부 기자에서 스포츠부 기자로, 방송국에서 대한농구협회로

스포츠인: 정재용 부회장에게 한국농구의 봄을 묻다

이민경 뉴스프리존 기자

[김세훈의 스포츠N]

장애인, 비장애인 따로?...시설, 공간은 처음부터 공용으로 마련돼야한다

김세훈 스포츠경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체육 경기대회 9개 대회에 대한 인권침해상황 점검

장애인스포츠 인권 알고 계시나요?

김최환 에이블뉴스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2024.06.16(일) 20:00 ZOOM

2024년 제4차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회 결과

1. 체육시민연대 핵심 목표 및 과제에 대한 논의

학생 신체활동 저조 문제에 대한 개선 촉구, 체육단체 독점적 권한 견제, 집행위원 중심의 업무 추진 등

2. 대한체육회장 연임 반대 운동 경과 보고

성명서, 기자회견, 카드뉴스, 언론 인터뷰, 칼럼 등의 활동이 있었고 추가적으로 가능한 활동에 대해 논의

3. 故 최속현 선수 4주기 대응방향 모색

기획보도

24일 - 최속현 사건 그 이후의 변화

25일 - 스포츠인권구제체계의 문제점

26일 - 향후 개선방향(최속현 부친 인터뷰 포함)

영상제작(유튜브 5분 4편)

4. 파리올림픽 개최 전후 우리의 역할

칼럼/기획보도/인터뷰

7월 26일 - 8월 11일

5. 조직개편(안)

스포츠 정책 모니터링, 피해자 심리지원, 용역사업 등 세부적인 역할과 가능성에 대한 논의

“다이빙
국가대표 지도자,
미성년 선수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돈 상납받아”

[단독] 대한체육회, '돈상납 의혹' 前 다이빙 국가대표 지도자에 '자격정지 3년' 확정

시사저널이 다이빙 국가대표 지도자의 돈 상납 등 여러 의혹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대한체육회가 당사자로 지목된 조우영 전 인천시청 감독에게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확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감독이 인천시체육회의 징계 결정에 반발해 재심을 요청했지만 대한체육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2024년 2월1일자 <[단독]'성폭행·돈상납 의혹' 前 다이빙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정지 3년' 중징계> 기사 참조).

전 다이빙 국가대표에 중징계 결정

시사저널 취재 결과,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6월12일 조 전 감독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인천시체육회가 지난 1월31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조 전 감독에게 내린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유지한다는 의미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규정에 따르면, 징계 대상자는 소속팀인 1차 징계기관의 판단을 먼저 받는다. 이에 이의가 있다면 상급 기관인 2차 징계기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2차 징계기관의 판단은 최종적이다.

지도자에 대한 징계는 견책, 감봉,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등이다. 스포츠계에서는 출전정지 이상의 징계를 중징계로 본다. 징계 사유는 입학비리, 성폭력, 폭력, 승부조작, 금품수수 등을 저질렀을 때다. 앞서 대한수영연맹은 2023년 12월 시사저널의 단독 보도(2023년 12월1일자 <[단독]“다이빙 국가대표 지도자, 미성년 선수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돈 상납받아”> 기사 참조)가 나간 후 조 전 감독을 국가대표팀 지도자에서 제외한 바 있다.

조 전 감독은 지난 2012년 이후 상습적으로 인천시 초·중·고와 실업팀 다이빙 선수들에게서 돈을 상납받은 의혹을 받는다. 2015년 12월7일 미성년 선수를 성폭행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밖에 임신한 선수를 인천시체육회에 보고 없이 전지훈련에 참가시킨 점, 자격 없는 선수에게 심판을 맡긴 사실 등의 문제도 불거졌다.

인천시체육회는 이 가운데 돈 상납과 성폭행 부분은 시효 만료 등의 문제로 징계 사유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 징계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조 전 감독은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다음 장 계속

“체육회 결정에 사건 종결” 힘 잃은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윤리센터는 인천시체육회-대한체육회의 징계 결정에 따라 조 전 감독에 대한 조사를 종결했다. 조 전 감독을 추가 징계할 경우 ‘이중 징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스포츠윤리센터 측 설명이다. 앞서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 등은 시효 만료의 문제로 종결 처리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2019년 스포츠계 '미투(Me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계기로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독립기구다. 스포츠계 부패·비리 근절을 목표로 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피해 신고를 받거나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한다. 이후 결과에 따라 문체부에 징계를 요청한다. 문체부가 이를 대한체육회에 내려보내고, 징계 대상자의 소속팀이 1차로 사안을 심의하는 구조다.

조 전 감독의 사례에선 인천시체육회와 스포츠윤리센터가 동시에 조사를 진행했다. 인천시체육회가 먼저 징계를 결정했고, 스포츠윤리센터는 이후 조사를 종결했다.

이와 관련해 체육계 내부에서는 징계 결정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독립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에게 권한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1-2차 징계기관은 징계 대상자가 속한 체육계인 만큼, 징계 심의와 결정 과정에서 ‘제식구 감싸기’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염두에 둔 듯, 박지영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은 지난 6월4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과 만나 체육계 내 징계 시스템상 문제 등을 언급했다.

박 이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이 주관하는 징계심의위원회 운영의 불합리성과 민간위원 자격 요건의 불명확성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위반 행위별 징계 기준이 모호해 징계 기준의 구체화·세분화 필요성과 비위 혐의 임원의 관할 문제 등을 지적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 확대도 거론됐다. “체육단체가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 52%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운을 뗀 박 이사장은 “이에 불복하거나 스포츠공정위원회·법제상벌위원회 등에 재심을 요구해 양형이 크게 감경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통해 스포츠윤리센터의 법적 성격을 스포츠중재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권한 강화 및 확대가 필요하다”며 “체육계 비리 및 인권침해에 한해서는 직접적인 징계 요구 및 중재 권한 등을 부여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했다.

스포츠윤리센터 2024 인권감시관 위촉, 체육계 인권침해 현장 점검 및 예방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는 지난 8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예방 활동을 위한 신규 인권감시관 총 10명을 위촉하고 활동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 제3항 제4호에 근거한 인권감시관은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 조사·조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으며, 이번 신규 인권감시관은 선수 출신과 지도자 및 학교 체육지도자 등으로 구성됐다.

인권감시관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체육계 내 인권침해와 비리 문제 등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조치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가 법령에 따라 인권감시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2024 인권감시관은 올해 연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 17개 고등학교 내 31개 운동부를 대상으로 인권침해와 비리 문제 등 현장 점검 및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스포츠윤리센터는 사업 확장을 통해 내년에는 전국 단위 체육대회와 전국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등을 대상으로 인권감시관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포츠인: 정재용 부회장에게 한국농구의 봄을 묻다

YONSEI UNIV. SPORTS MAGAZINE
SISBOOMBAH

학생 선수에서 학생으로, 사회부 기자에서 스포츠부 기자로, 방송국에서 대한농구협회로... 굵직한 변화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있다. 정재용 현 대한농구협회 부회장이다. 연세대학교 동문인 정재용 부회장은 2024년 3월 29일부로 새롭게 대한농구협회의 상근부회장을 맡았다. 다시 새로운 모험을 시작한 정재용 부회장의 여정을 시스붐바가 돌아봤다.

PROFILE

체육교육학과, 신문방송학과 (현 언론홍보영상학부) 87학번

現 대한농구협회 상근부회장

前 KBS 스포츠 취재부장

前 KBS 스포츠국장

前 대한농구협회 미래전략추진위원장

Part 1. 학생 선수에서 학생으로

특이한 이력을 여럿 가지고 있는 정재용 부회장에게 먼저 축구선수 생활에 대해 물었다. 그는 제대로 선수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축구가 너무 하고 싶어서 중학교 때 시작했는데, 학생 선수의 현실이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려웠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당시 운동선수는 수업을 거의 들어가지 못했어요. 선후배 간 폭력, 코치의 체벌도 있었고, 하루에 새벽 오전 오후 야간 네 번 운동 하고, 운동부 학생들도 당시에는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중간에 한 번 연습게임을 하다 갈비뼈를 다쳤어요. 운동을 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교실에 잠시 들어가 친구들을 만났는데, '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 결국 1년 정도 하고 그만뒀죠. 요즘 동호인에서 중학교 때 잠깐 운동했던 친구들을 선출이라고 안 하고 '반출'이라고 해요. 이를테면 그런 거죠. (웃음)

정재용 부회장은 학생 선수와 학생을 모두 경험한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이분법적 시스템을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구분돼 있었죠. 많이 바뀌고 있지만, 기본 틀은 여전합니다. 엘리트 운동부에 딱 들어가면 진로가 그냥 결정된 거죠. '프로 선수를 목표로 댈다.' 공부는 뒷전이 되고... 운동부보다 운동을 더 잘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운동부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대학 가는 걸 목표로 하는 일반 학생인 거죠.

이렇게 엘리트 운동 학생 선수와 일반 학생의 진로 루트가 완전히 구분돼 있죠. 이 벽을 허무는 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여러 종목 협회에게는 큰 과제입니다. 체육계에서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실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과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가 굉장히 많죠.

일반 학생의 길로 다시 돌아왔을 때 학업적인 어려움은 없었을까?

있었죠! 중학교 때 이게 제일 무서웠죠. 원래 공부를 곧잘 했는데, 운동을 시작하고 교실에 아예 못 들어가고, 들어가도 잠만 자고 나오고. 이러니 시험을 볼 수가 없는 수준이었죠. 아마 (등수가) 거의 바닥으로 갔던 걸로 기억나요. 저희 때는 고등학교 입학도 시험을 봐야 했어요. 수능처럼 봐서 최저 점수를 통과해야 배정받을 수 있었어요. 최저 점수 넘기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운동 그만둘 때는 그것조차 부담스러웠어요.

막상 고등학교 입학은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대학 진학할 때, 중학교가 기초를 다지기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공부를 안 했으니까 수학 같은 과목 기초가 굉장히 부족해서 고생했죠. 저는 그런 거 말고는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자료 출처: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4512>

다음 장 계속

우여곡절 끝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이하 체교)에 입학 후 신문방송학을 복수전공하며 기자의 꿈을 키운 정재용 부회장. 기자 생활 중에도 '이슈메이커'였던 그에게 'KBS 재합격 사건'의 자초지종을 물었다. 94년도에 KBS 입사시험을 봤는데, 그때는 스포츠 기사를 안 뽑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 기자로 들어가서 스포츠 기자 하면 되지'하고 시험을 봐서 들어갔죠. 들어가서 "스포츠 기자가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5년 정도 근무하면 스포츠국으로 보내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에서 사회부 기자 생활을 시작했고요. 사회부 기자로서의 기초 트레이닝은 기자들 누구한테나 필요한 거니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중간에 커리어에 대해 고민하던 중 입사 공고가 났는데 스포츠 기자가 있었어요. 문제는 제가 시험공부를 할 상황이 아니었죠. 새벽 4시에 출근하고... 당시에는 '워라밸' 개념을 말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행히 영어 점수가 아직 유효했어서 가장 가까운 선배 한 명 한테만 이야기해서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냥 시험 봤죠.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 대전 보도국 1층에서 밤샘 근무를 하고 아침 기사 정리하고 있었는데, 대전 총국장 선배가 막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 내려와 험한 말을 하시면서 이 정재용이 어디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갔더니 난리가 나셨더라고요. 선배가 서울 인사국장한테 전화가 왔다고... 필기시험 통과한 친구들 면접을 봐야 하는데, 인사국장이 보다가 '아니 이 친구는 뉴스에 나오는 친구인데?' 하고 우리 대전 총국장한테 전화한 거죠. 그때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현직 기자가, 9시 뉴스 리포트까지 하는 애가, 무슨 기자 시험을 다시 보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최종 면접 당시의 에피소드도 언급했다.

조금 헛갈리네요. 면접 때 홍두표 사장님인지, 최동호 부사장님인지... 저한테 "정 기자, 자네 도대체 왜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면서까지 스포츠 기사를 하겠다는 건가"라고 물어보셔서 대답했죠. "제 이력서를 봐주십시오. 저는 축구 선수였고, 대학도 체육과와 신방과를 나왔습니다. 저는 스포츠 기자가 하고 싶어서 그 과정을 다 거쳤고, 준비가 됐습니다. 사회부에서 트레이닝도 충분히 받았습시다." "스포츠 기자가 진짜 하고 싶은데 회사 여건상 5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다시 시험 본 겁니다. 보내주시면 누구보다 잘할 테니 보내주십시오"라고 땡깡 부렸죠. 그랬더니 손짓을 하면서 "나가 있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왔죠. 원래 스포츠 기자 뽑을 사람이 2명이었어요. 회사에서는 막 고민을 하다가 신입을 2명 뽑고, 저는 대전에서 서울 스포츠국으로 발령을 냈어요. 사실 대전에서 신입사원 연수도 안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현장에서 근무했어요. 당시 부여에서 굉장히 큰 간첩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현장 투입돼서 2~3일간 거의 잠도 못 자고 취재하면서 우리가 특종상을 받았는데, 흔히 말하는 '거지꼴'을 해서 회사에 딱 왔더니 대전 국장님께서 "너 그냥 짐 싸서 올라가라." 그래서 그 상태에서 짐 싸서 서울로 왔어요. 결국 자신이 원하던 스포츠 기자의 자리를 쟁취한 정재용 부회장은 이후 다양한 기사뿐 아니라 다큐멘터리도 여러 편 제작했다. 다큐멘터리 제작 배경에 대해 묻자, 정재용 부회장은 '스포츠변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년간 6편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기획을 미국 유학 중 구성해 한국에 가지고 들어왔다고 답했다. 제가 2002년 월드컵 끝나고 유학 갔거든요. 이전에는 스포츠국이 스타 선수들에 대한 기사, 예를 들면 '박찬호가 잘했다, 선동열이 잘했다.' 이런 기사를 많이 썼고, 스포츠의 구조적 문제를 다루는 보도물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심층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만드는 시사제작국으로 자원해서 갔죠. 지금의 <시사기획 창>의 전신이 <시사기획 쌤>인데 제가 창단 멤버가 된 거죠.

정재용 부회장은 6부작 중 <박찬호와 마이클 조던>, <죄송합니다. 운동부입니다.>의 기획 의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6편 중 첫 편인 <박찬호와 마이클 조던>은 박찬호 선수를 데리고 메이저리그라는 글로벌한 리그가 대한민국 시장에 들어왔을 때 우리 방송사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과정을 다뤘습니다. 세계에서 스포츠는 이제 산업의 패러다임으로 성장해 가는데, 우리는 금메달만 바라보는 과거의 패러다임에 묶여 있어서 스포츠 산업 트렌드에 대응하지 못한 것을 다룬 거죠. <죄송합니다. 운동부입니다.>는 대한민국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다룬 거죠. 핵심은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아도 운동만 잘하면 서울대, 연고대를 다 보내주는 체육특기자 제도가 우리 스포츠 시스템을 왜곡시키는 본질적 요소라고 본 겁니다. 이 두 개가 제 박사 논문입니다. '세계에서 스포츠는 하나의 콘텐츠 산업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정재용 부회장은 성적 지상주의적 관점이 낳은 인권 침해 등의 폐해를 지적하며 금메달 패러다임을 넘어 산업과 복지의 패러다임으로 스포츠를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포츠는 강력한 경제적 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콘텐츠이자,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라는 관점이다. 제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된 거죠. 축구가 좋아서 축구 선수 생활을 시작했는데, 축구 훈련하는 게 무서워진 경험이에요. 지나친 훈련과 체벌... 어린 나이에도 '내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정상인이 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내가 축구는 그만했지만 스포츠는 여전히 좋아하니까 스포츠를 바꾸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때 TV를 보면 기자들이 진짜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무언가 바뀌었다 그러고. 나도 기자가 돼서 스포츠를 바꾸고 싶다. 그래서 사실 스포츠 기자 하게 된 거예요. 기자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흔히 말하는 '세상 물정 모르고 막 날뛰는 기자'로 살았어요. 이 사람도 비판하고, 이것도 잘못됐다고 하고... 그러다 느낀 건 이게 너무나 거대한 문제라서 '누가 사람을 때렸으니까 그 사람을 파면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바뀌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나한테 답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직접 가서 공부하고 내가 답을 찾아 돌아와서 그걸 보도에 반영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갔어요. 처음에는 재정적 여력이 없다 보니 박사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요. 석사 교수님이 박사까지 하기를 추천하셨고 또 강의를 맡겨 주셔서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박사까지 하게 된 거죠. 거기서 제가 내린 결론은 미국의 NCAA시스템이 최저학력제도를 바탕으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지 않으면 운동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있고, 대학이 그렇게 하니까 NFHS도 똑같이 따라가고 있었어요. 이걸 보고 우리도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대학 스포츠와 고등학교 스포츠를 입시로 연결하는 게 결국은 해법이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최근 넷플릭스 예능에 출연한 이관희(체교 07)의 <죄송합니다. 운동부입니다.> 출연 분량을 짧게 편집한 영상이 소소한 화제를 모으며 <죄송합니다. 운동부입니다.>를 다시 시청한 사람이 늘어났다.

나는 그건 몰랐어요. 우리 딸이 이관희가 도서관 가서 해매고 있는 영상 보여주면서 “이거 내레이션 아빠 목소리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가 이걸 어떻게 봤냐?” 그랬던 기억은 나는데 사람들이 다시 많이 보는지는 몰랐네요. 신선하고 기분 좋죠. 결국 콘텐츠 만드는 사람들은, 대중이 자기가 만든 걸 많이 보고 그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사실 다들 (이)관희 보는 맛에 보겠지만... (웃음)

촬영 당시 이관희가 재미있는 장면을 많이 만들었고, 제작진들이 편집하며 이관희를 굉장히 귀여워했다는 후일담을 들려주던 정재용 부회장, 밝은 얼굴로 말을 이었다. 사실 최근에 3X3 농구 대회 현장에 갔는데, 거기서 중계 제작 업무를 하던 PD 친구 한 명이 찾아와서 인사를 했어요. 자기가 야구 선수 출신인데 <죄송합니다. 운동부입니다.>를 보고 경력 전환을 잘 해서 기자님께 고맙다고, 인생의 큰 계기가 됐다고 인사해 주셨는데, 큰 상을 받는 것보다도 보상받는 느낌, 정말 뿌듯한 느낌이었어요.

Part 3. 정재용 부회장에 ‘한국농구의 봄’을 묻다.

정재용 부회장은 왜 축구 선수 출신임에도 농구계에서 일하게 됐을까?

제가 대학교 들어와서 <볼케이노>라는 농구 동아리에 들어가면서 농구에 완전히 빠졌죠. 지금도 <볼케이노>가 전국에서 강호인데, 저희 때도 우승도 많이 하면서 즐겁게 지냈어요. 지금까지도 모임에 가서 YB친구들이랑 같이 운동도 하고. 동아리를 계기로 농구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 관련 인연들이 생겨서 농구 미래전략추진위원장을 하게 됐어요.

대한농구협회(이하 농구협회) 부회장을 맡게 된 스토리도 들을 수 있었다.

제가 2023년에 대한민국 농구 미래 발전 전략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걸 농구협회가 이사회 대의원 총회를 통해 공식 채택했어요. 농구협회는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데, 이걸 제가 위원장으로서 조직 밖에서 실행하는 거잖아요? 한계가 느껴졌어요. ‘이걸 실행하려면 조직 안에서 인사와 예산권을 직접 쥐고 하나하나 챙기지 않으면 어렵겠구나.’ 그래서 부회장을 해 버린 거죠. 사실 KBS는 정년이 보장된 곳이잖아요. KBS 국장 자리를 놓고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애들 입시도 다 끝났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살면 안 될까”라고 집사람한테 말했더니 흔쾌히 하라고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부회장을 맡았습니다. 대한민국 농구 미래 발전 전략 보고서에서 엘리트와 생활체육인의 통합을 위해 디비전 시스템 등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한 정재용 부회장. 관련해서 새롭게 준비 중인 사업이 있는지 물었다. 인터뷰일 기준 정식 취임이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사업을 소개했다. 사실 동호인 농구가 이미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상위권 팀에는 프로 선수 출신들이 2~3명 이상 뛰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엘리트 팀의 중위권 실력 정도 되는 생활체육 농구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이저 대회들을 엮어서 내년에 공식적으로 디비전 3 (KBL 3부리그 격)를 출범하기로 했고, 메이저 대회에 랭킹 포인트를 매긴 다음 연말에 가칭 ‘농구 코리아컵’으로 왕중왕전을 크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재용 부회장은 정신없는 한 달을 보내고 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치른 국가대표 경기인 3x3 농구 아시안컵에서 남자농구 국가대표 팀이 출전 끝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기대에 못미치는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원인으로 농구협회의 부실한 감독 선임과 선수 선발이 지적됐고, 농구협회는 실제로 감독 선임 과정에서 지도 경력 확인이 미흡했음을 인정했다. 결국 농구협회는 감독의 경력을 사후적으로 확인 중이며, 감독이 이력서에 제출한 경력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을 발표한 상태다. 정재용 부회장은 3X3 종목 관련 논란에 대해 먼저 입을 열어, ‘협회의 종목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했다. 3X3 디비전 1, 사실상 프로리그를 협회에서 직접 운영하려고 해요. 이번에 여러 논란에 대해 협회에서 본질적으로 책임감을 느끼는 게, 3X3이 올림픽 종목인데 국내에 제대로 된 리그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뽑을 선수와 지도자가 정말 희귀합니다. 3X3 경험이 있는, 국제적인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지도자가 너무나 부족하고요. 협회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올해 하반기에 서울 내지 수도권에서 리그를 만들어보려고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재용 부회장에 ‘한국 농구의 봄이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한마디로 디비전 시스템.

누군가는 미친 소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2032년 브리즈번 올림픽까지 농구 선수를 100만 명으로 육성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디비전 시스템을 통해서 100만 농구 선수를 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넓은 저변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 디비전을 하나하나 올라가서 프로 선수가 되고 국가대표가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꿈이 크면 그 깨진 조각도 크다’

항상 꿈을 향한 모험 끝에 원하던 것을 쟁취해 왔던 정재용 부회장은 한국 농구에 봄바람을 불어올 꿈을 다시 꾸고 있다.

자료 출처: <https://www.newsfreez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4512>

[김세훈의 스포츠] 장애인, 비장애인 따로?... 시설, 공간은 처음부터 공용으로 마련돼야 한다

“서로 함께 지내보지 않으면 어떻게 이해하겠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이가 없음을 난생 처음 실감했다.”

지난 15일 서울 반포한강공원 예빛섬에서 열린 BDH재단 이사장배 어울림 3X3 휠체어 농구대회에 참가한 남자농구 국가대표 출신 김병철(51)·정영삼(40)이 내놓은 소감이다. 김병철·정영삼은 휠체어 국가대표팀 김상열(41)·오동석(37)과 함께 ‘슈팅 투게더’라는 팀을 구성했고 예상 밖으로 2위까지 올랐다.

어울림 3X3 휠체어 농구대회는 장애인 2명, 비장애인 2명이 ‘어울려’ 하는 3대3 농구대회다. 4명 모두 휠체어를 타야 한다. 김병철·정영삼은 지난 3개월 동안 휠체어를 타는 훈련을 열심히 했다. 휠체어를 타는 것은 걸음마와 같다. 휠체어를 굴리느라 손바닥이 까졌고 손가락도 다쳤다. 손바닥에는 굳은살이 생겼고 손바닥은 시커멓게 변했다.

이번 대회에는 총 12개팀이 참가했다. 휠체어 농구를 오랫동안 해온 베테랑 비장애인들도 있었다. 진주연 서울시립대 교수(스포츠과학과)와 김재식 청주성심학교 체육교사는 27년째 휠체어 농구를 하고 있다. 둘은 용인대 특수체육학과 시절인 1998년 휠체어 농구를 동아리 활동으로 시작했다.

진 교수는 “과거 국내에서 열린 모든 휠체어 농구대회는 대부분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으로 진행됐다”며 “지금은 통합 대회가 없고 과거 7개 정도 있던 비장애인 휠체어 농구팀도 사라졌거나 사라질 위기에 있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현재 5대5 휠체어 농구팀이 전국에 30여개 있다”며 “이것도 과거에 비하면 많이 늘어난 수치”라고 덧붙였다. 진 교수는 과거 미국에서 석박사 공부를 할 때 구입한 휠체어를 지금도 타면서 농구를 하고 있다.

김 교수는 농구 특기생으로 용인대에 입학했다. 농구팀이 해체되면서 휠체어 농구를 접했다. 김 교수는 “휠체어를 잘 조작해 요리조리 빠져나가면 자동차를 타고 농구하는 기분”이라며 “하면 할수록 휠체어 농구 매력에 빠져든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휠체어를 타면 걸음으로는 똑같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대회가 많아져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게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세계 6대 메이저 마라톤 대회 중 하나인 런던 마라톤은 세계 마라톤 역사상 처음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상금을 똑같이 맞췄다. 테니스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테니스는 2002년부터 4대 메이저 대회에서 휠체어 테니스를 정식 종목으로 개최하고 있다. 장애인 올림픽인 패럴림픽이 창설되기 훨씬 전부터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서기도 했다. 패럴림픽이 생긴 뒤부터는 패럴림픽과 올림픽에 모두 출전하는 장애인 선수들도 계속 등장하고 있다. 일본국가대표훈련센터(Japan National Training Center)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어졌다. 모든 안내 문구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대등하게 제작됐다. 반면 한국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시설과 건물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시설을 구분하고 있다.

장애인 스포츠계 관계자는 “별도 추가 장비와 시설 없이 장애인, 비장애인이 편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버스 바닥 높이와 보도 블록 높이를 법적으로 맞춘 나라, 장애인도 차별없이 취직할 수 있도록 마트 현금 계산원을 무조건 앉아서 근무하게 법으로 규정한 나라가 있다”며 “우리도 비장애인 시설을 먼저 만든 뒤 장애인 시설을 부가로 추가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쓸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방향을 의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단식 에스컬레이터보다는 컨베이어벨트식 통로를 만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다”며 “비용, 공간이 더 들겠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눈치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같은 공간과 같은 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얼마 전에 장애인식 개선과 인권 교육 강사로 활동하시는 지인께서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칼럼을 써 주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해 왔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는 배리어프리 스포츠 사회, 문화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장애인 인권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비장애인 스포츠뿐 아니라 장애인스포츠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장애인 차별을 막고 장애인스포츠 선수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스포츠 인권 헌장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얼마 전 '스포츠 인권 헌장'과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관련기관과 단체에서 이행할 것을 권고 한 바가 있는데 장애인스포츠 인권에 관련된 부분을 더욱 살펴보고 싶다.

지난 2021년 8월 '스포츠 기본법 등 스포츠 3법이 제정됨에 따라 2022년 2월 국적, 성별, 인종, 신분, 경제적 상황, 신체적 조건 등으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스포츠 기본법'과 '체육인복지법' 시행령이 공포됐다. 국민 모두가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전문체육인(장애인 전문체육인 포함)이 생활에 대한 큰 걱정 없이 국가 체육 발전과 국민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이러한 국민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이어주는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 복지 증진 등 우리나라 미래 스포츠 정책을 선도하고 기틀을 세우기 위한 법적 체계가 마련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0년 헌장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이행해 왔으나 그 후 10년여가 지난 시점에 빙상, 유도 등 종목에서 폭력·성폭력을 비롯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 변화한 체육계 환경과 스포츠에 참여하고 향유 할 권리(이하 스포츠권) 관련 다양한 인권 문제 대응 방안 등을 새롭게 반영하고, 현실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헌장과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2023년 2월 1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관계기관과 체육단체 등은 스포츠 분야 인권 보장 책임을 다하고, '스포츠 인권 헌장'(이하 헌장)과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채택·이행하고,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비롯해 선수관리 담당자 등 체육 관련 종사자에게 이를 교육할 것과 '모두를 위한 스포츠'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스포츠 인권 헌장은 체육 정책 관계자, 지도자, 운동선수 및 시민들이 알아야 할 스포츠의 참 의미와 신체활동의 사회적 역할을 천명하기 위해 제정된 스포츠 인권 헌장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스포츠 활동에서 누려야 하는 인권과 이를 지키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 방향을 담고 제7장 제29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스포츠는 인권이다. 스포츠와 신체활동은 육체로 하는 자기표현 활동이다. 제2장 모든 사람은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참여하고 누릴 권리가 있다. 제3장 스포츠는 민주 사회의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의 장이다. 제4장 스포츠는 세계인의 공용어이다. 제5장 스포츠와 신체활동은 개인의 행복 증진에 기여한다. 제6장 스포츠는 다양하다. 제7장 스포츠의 진정한 목적 구현을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 노력해야 한다.

특히 제2장에 모든 사람 중에는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는데 제6조에서 국가는 장애인이 스포츠 활동 참여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5가지를 명시했다. 1. 장애인은 스포츠와 신체활동을 통해 육체적 자신감과 몸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다. 2. 장애인은 스포츠와 신체활동 참여를 통해 더 많은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3. 국가는 장애인이 스포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 국가는 장애 종류와 욕구에 맞는 신체활동 기회를 주고, 전문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 5. 스포츠 활동 현장에서는 장애인이 자유롭게 활용할 적절한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

스포츠 기본법 제3조(정의)는 "장애인스포츠"란 장애인이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생활 스포츠와 전문 스포츠를 포함한다)을 말하면서 스포츠 인권 헌장에 장애인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스포츠 인권 가이드 라인'에서는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폭력·성폭력·학습권 침해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스포츠 인권의 기준을 제시하고 특히 제6절에서 장애인스포츠 권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체육단체 등은 모든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유형과 신체 조건에 따라 적합한 스포츠를 선택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패럴림픽, 데플림픽, 스페셜올림픽 종목 등의 장애인스포츠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 주요 종목 활동과 경기대회에 장애인이 차별 없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통합스포츠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특히 교육기관은 학교체육 활동에 장애아동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여기에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체육시설과 편의시설, 장비, 장애인스포츠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 밖에도 스포츠 관련 정보에 장애인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내외 장애인 경기대회 중계와 보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전문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 전문체육인에게 적절한 급여와 상금,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처럼 스포츠 인권 헌장이나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스포츠 인권 헌장은 곧 장애인스포츠 인권 헌장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모두를 위한 스포츠'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모든 사람에 의한 스포츠, 모두의 스포츠는 장애인이라도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 할 권리를 가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는 배리어프리 스포츠 활동으로 소통과 화합의 스포츠 사회를 조성해 갔을 때 드디어 장애인스포츠 인권 증진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주간 스포츠 소식

비수술 트랜스젠더 수영선수, 국제대회 여자부 출전 불가 판정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613_0002771297&clD=10501&pID=10500

의왕시 체육강좌 폐강...도시공사vs시의회 '네 탓' 공방 (B tv abc뉴스) 2024-06-17 17:46:10

https://ch1.skbbroadban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60&p_no=170816

기장군, 종합체육공원 '정관스포츠힐링파크' 개장

<https://www.nbntv.kr/news/articleView.html?idxno=330113>

'韓 생활 체육 DAY, 파격 이벤트' 유니폼 입으면 피자 반값

https://www.nocutnews.co.kr/news/6161897?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40617031444

망가진 골대 그물까지 세심하게...원주시, 체육시설 안전 점검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7017600062?input=1195m>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어르신 건강증진 활동 추진

<https://www.news1.kr/articles/5449944>

장애인체육회, 한강공원서 파리 패럴림픽 페스티벌 개최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6023900007?input=1195m>

정윤경 도의원, 학교 체육관 미개방 및 과도한 사용료 문제 지적

<https://www.ajunews.com/view/20240617164104607>

대한체육회 주최 2024 행복나눔 파크골프 교실 개최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617000393>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